

이앙시기에 따른 벼 이삭누룩병(*Ustilaginoidea virens* Takahasi) 발병 정도

성덕경^{1*}, 남진우¹, 이성태¹, 최용조¹, 홍광표¹

¹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서론]

벼 이삭누룩병은 질소비료의 과다 시용에 의하여 발생이 조장되고, 일조부족, 강우 등의 환경조건이 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 의존형 병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병이 발생하더라도 쌀 수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풍년에 발생한다고 하여 풍년병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소득작물의 논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다비재배가 증가하고, 숙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벼가 재배되어 환경조건이 다양하다. 이삭누룩병이 발생하면 쌀 품질이 떨어져 고품질 쌀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벼 숙기별로 이앙시기 검토가 필요하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으로는 조생종 2품종(운봉, 운광) 중생종 2품종(화영, 화성) 중만생종 3품종(동진, 동진1호, 호품)을 공시하여 경남 진주에서 수행하였다. 이앙은 5월 15일에서 6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5회 기계이앙을 실시하였다. 시비와 기타 재배방법은 표준 재배법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벼 이삭누룩병 발병 수율은 반복당 20주를 임의로 선정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생종 품종의 벼 이삭누룩병 발병 수율은 5월 15일에서 6월 5일에 이앙한 시험구에서 병 발생이 없었고, 6월 15일 이앙시 0.4%, 6월 25일 1.6% 발병하였다. 중생종 품종은 5월 15일 및 5월 25일 이앙한 시험구에서 0.3%, 6월 5일 1.5%, 6월 15일 3.6%, 6월 25일 이앙시 0.4% 발병하였다. 중만생종 품종은 5월 15일 이앙한 시험구에서 0.1%, 5월 25일 1.4%, 6월 5일 및 6월 15일에 각각 4%, 4.6%로 가장 많이 발병하였고, 6월 25일에는 2.1% 발병하였다. 벼 이삭누룩병이 많이 발생하는 논에서는 조생종 및 중생종은 6월 5일 이전, 중만생종은 6월 이전에 이앙하는 것이 고품질 쌀 생산에 유리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065031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55-254-1223, E-mail. sdk201@korea.kr